다민바이오텍, 황토담배 7월 첫선

벤처기업이 황토 성분을 담배에 첨가해 만든 황토담배를 개발해 7월 첫선을 보인다.

다민바이오텍(공동대표 한승희 · 양윤만)이 개발한 황토담배는 황토 성분을 담배에 첨가해 만든 기능성 담배로 민간 담배로는 국산 2호이다.

다민바이오텍은 중국의 담배 제조회사인 이중회사청도권련공장에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기술수출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27일 밝혔다.

다민바이오텍은 황토담배 기술을 공급하는 대신 청도권련공장에서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담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할 예정이다.

청도권련공장은 연간 담배 총생산량이 80만박스(1박스=5만개비)로 중국 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담배공장이다.

피구(Figo) 브랜드로 판매될 황토성분 담배는 황토를 미세한 알갱이로 만들어 잎담배에 뿌리거나, 담배 필터에 넣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기존 담배제품이 향과 엽연초, 유해요소인 활성탄을 사용한 이중필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황토담배는 담배의 유해성을 줄이고 기존 담배 맛과 향을 더욱 개선했다. 고급 담배시장을 겨냥한다는 판매전략 아래 갑당 가격은 2000원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02)6000－5959

<Chemical Daily News 2002/05/29>